

고규홍의 '나무 생각'



귀로 향기를 들어야 하는 꽃

한 해의 가장 추운 때라는 대한(大寒)을 며칠 앞둔 숲에 매화꽃이 피었다. 옷감을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꽃망울엔 이미 봄의 기미가 가득 들었다.

오 은은한 향을 홀로 아득히 풍기는 꽃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매화나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매화나무는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기원전부터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선비들에게 사랑받은 나무다. 그러니 우리 나무라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옛 선비들은 매화를 유난스레 좋아했다. 옛 시문(詩文)과 서화(書畵)에 매화만큼 자주 등장하는 꽃도 없다.

매화가 아닌 다른 꽃의 향기를 맡는다는 표현으로 '문향'을 쓴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매화 향을 표현할 때만큼 자연스럽지는 않다. 매화꽃 감상법을 유독 문향이라 한 것은 매화를 사랑한 이유가 달아 있다. 매화는 번거로운 시정(市井)이 아니라, 고요한 은사의 정원이라든가 산사의 뜰에서 홀로 아득히 풍겨오는 향기를 감상하는 게 맞습니다.

매화나무라 했지만, 우리 식물도감에 매화나무라는 나무는 없다. 식물 이름을 짓는 방식이 대개는 열매 이름을 중심으로 붙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밤이 열리는 나무는 밤나무, 감이 열리는 나무는 감나무로 부르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매화 꽃진 자리에 맺히는 열매가 매실이기 때문에 매실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매실을 따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는 독성이 있다. 매실나무가 아니라 매실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매화를 즐기는 법도 따로 있었다. '문향(聞香)'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향기를 듣는다'라는 뜻이다. 코로 맡는 게 당연한 향기를 귀로 들어야 한다고 표현했다. 문향이라 할 때의 '문(聞)'은 처음에는 듣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지만, 나중에 '이치를 깨우친다' '알린다' 등의 뜻이 더해졌고, '냄새를 맡는다'는 뜻까지 포함됐다. 그럼에도 소리를 듣는 기관인 귀를 뜻하는 '이(耳)'가 들어 있는 글자여서 아무래도 '듣는다'는 뜻이 가장 앞자리에 선다.

의료칼럼

기관지염, 폐렴 그리고 천식



조형민 광주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장

당황해 하기 마련이다.

감기, 기관지염, 폐렴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개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렸다는 생각을 한다. 감기는 다른 말로는 '상기도염'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도 상부 즉 코, 목, 기도에 바이러스가 침입해 기침, 콧물, 열 등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한다. 감기의 경우 폐는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 소리는 정상이다. 호흡 소리가 비정상이라면 감기가 아닌 기관지염이나 폐렴일 가능성이 있다.

천식은 알레르기 반응, 바이러스 감염, 운동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관지 내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만성적인 기관지 내 염증을 인체 기관지가 민감해져서 쉽게 좁아진다. 좁아진 기관지 때문에 호흡 곤란, 기침, 쌉쌉거리는 호흡 등이 발생한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기관지가 확장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그만큼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된다. 이런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병원을 찾아 온다. 상담과 진찰 중에 아이가 천식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은

천식이 걸리는 환자들의 40% 정도는 생후 한 살 이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미취학 아동의 15%가 천식을 가지고 있다. 초·중·고교생이 되면 기관지 크기가 커져 천식이 감소한다. 이 시기에는 5% 미만의 아이들이 천식을 가진다. 천식을 가진 아이들의 80%는 감기에 걸리면 천식이 악화된다. 감기에 걸리면 호흡 곤란, 기침, 쌉쌉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때때로 아픈지라도 빈번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천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고

한전공대 부지, 성장 가능성·수요자 우선해야



이원표 미국 실리콘밸리 한미상공회의소 회장

별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정립되기도 전에 벌써 5차 산업 혁명이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발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적화된 R&D 자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교육 기반 조성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대학에서 생활할 수요자를 위해서는 연구에서 문화 생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캠퍼스 타운 조성에 유리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가 소지역적 개발 논리에 급급해 지역 자원과 교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발판이나 산기슭에 위치해서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산인 인재 양성에 그만큼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런바 지식의 빅뱅 시대에 작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매일 같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정보 공유, 협업, 개방, 플랫폼은 생존 전략의 고유 명사가 되었다.

한전공대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호남 거점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단기간에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다면 해답은 간단히 정리된다. 그렇다. 세계가 주목하는 에너지 신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한전공대는 지역 개발 논리가 아닌, 연구 중심 대학의 성공에 유리한 정주 환경과 대학에서 생활할 교수, 학생 등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지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016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간치를 벌였다고 한다. 매화음(梅花飮)이라는 고사의 연유다. 홀로 은근히 즐기보다는 벗들과 함께 즐겨야 한다는, 문향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감상법이다.

나무마다 가까이 다가서는 법이 제각각 다른 건 사실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렇듯 나무에도 저마다의 특징이 따로 있기에 그 특징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다가서는 법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생명을 만나는 데에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생명이 다가서려는 지극한 관심과 성의이다.

곧 이 땅에 봄이 다가올 것이고 매화는 온 땅에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향기를 가득 채울 것이다.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을 더 찬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우리 곁의 생명들이 매운바람 맞으며 애먼클랜 살아가는 겨울이다. 그러나 이제 곧 봄이 온다. 모든 생명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계절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한전공대 지자체에 재정 부담 떠넘겨서야

한전공대 후보지 선정이 임박해 오면서 지방 자치 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 신청한 곳은 광주·전남 각자 세 곳씩으로 한전 입지 선정 전문가 위원회는 이중 광주·전남 한 곳씩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할 후 최종 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전공대 후보지 선정이 임박해 오면서 지방 자치 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후보지로 신청한 곳은 광주·전남 각자 세 곳씩으로 한전 입지 선정 전문가 위원회는 이중 광주·전남 한 곳씩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할 후 최종 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지가 발표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지 선정 배정 평가 기준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 평가 기준을 보면 경제성과 지자체 지원 계획을 평가하는 2단계 심사 총점 35점 가운데 부지 제공 조건(13점)과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 계획이 각각 7점과 8점씩 모두 15점이나 된다.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지가 발표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지 선정 배정 평가 기준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 평가 기준을 보면 경제성과 지자체 지원 계획을 평가하는 2단계 심사 총점 35점 가운데 부지 제공 조건(13점)과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 계획이 각각 7점과 8점씩 모두 15점이나 된다.

전체 35점 가운데 지자체의 역량이 28점이나 되다 보니 지자체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악한 재정을 무릅쓰고 출

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정을 위해 무리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자체가 운영비를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가.

체육관도 없는 학교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광주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3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거나 장마·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체육 수업은 물론 야외 활동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지가 발표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지 선정 배정 평가 기준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 평가 기준을 보면 경제성과 지자체 지원 계획을 평가하는 2단계 심사 총점 35점 가운데 부지 제공 조건(13점)과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 계획이 각각 7점과 8점씩 모두 15점이나 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315개 학교 중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9개 등 모두 39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다. 이들 학교는 낡은 낱씨엔 인근 학교 체육관을 빌려 쓰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산수초가 충장중 체육관을 사용하는 등 인근 중·고교 체육관에 기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광주시교육청과 사립 학교 법인의 단일한 대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교단의 진단이다. 체육관 건립에는 한 곳당 20~30억 원이 드는데 사립 학교 측은 재정이 열악해 전체 사업비의 20%인 법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또한 예산 문제와 사립학교 측의 건립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중·고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학교가 체육관 한 개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송원학원 산하 5개 학교와 유은학원 산하 4개 학교, 죽호학원 산하 4개 학교는 각각 하나의 체육관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공립인 용산초와 북초는 인근에 다른 학교

가 없어 비가 내리거나 미세먼지가 덮치는 날이면 실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광주시교육청과 사립 학교 법인의 단일한 대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교단의 진단이다. 체육관 건립에는 한 곳당 20~30억 원이 드는데 사립 학교 측은 재정이 열악해 전체 사업비의 20%인 법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또한 예산 문제와 사립학교 측의 건립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無等鼓

그를 만난 것은 10년 전쯤이다. 이곳 출신은 아니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광주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다시 그를 만난 것은 최근 일이다. 광주라는 도시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아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도시 마케팅과 도시 브랜드 관련 전문가다.

개발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한다. 외지인들 역시 그 도시의 개성과 매력 및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개발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오로지 아파트만 건설되고 있는 도시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도시 광주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흔히들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광주 정신'을 문화로, 도시 계획으로, 도시 재생으로

아파트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비싼 분양가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여전하다. 일부는 아파트를 사재

도시 광주

담아내야 하는데 지금 기한 뒤 프리미엄을 얹어 실수요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광주 30여 곳, 전남 70여 곳에 이르는 5·18 유적지를 도시 마케팅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기한 뒤 프리미엄을 얹어 실수요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광주 30여 곳, 전남 70여 곳에 이르는 5·18 유적지를 도시 마케팅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도시의 공공(公共) 즉 공적인 기준에 근거, 시민 다수의 정서를 반영해 조성되어야 한다. 토지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개발은 행정 기관 인허가나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나 건설 업체가 사익만을 추구해서는 시민 전체의 이익, 더 나아가 그 도시에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밖에 없다.

개발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한다. 외지인들 역시 그 도시의 개성과 매력 및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개발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오로지 아파트만 건설되고 있는 도시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아파트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비싼 분양가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여전하다. 일부는 아파트를 사재기한 뒤 프리미엄을 얹어 실수요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광주 30여 곳, 전남 70여 곳에 이르는 5·18 유적지를 도시 마케팅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탈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월국 220-0515 문화사월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661) (FAX 222-0661)
정치부 220-0632 여론채부 220-0652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664) (FAX 222-0693)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222-0642) (FAX 222-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